

盧, 내달 개헌 발의 후 탈당할까

개헌 진정성 확보 위해 결행가능성 대두 우리당 신당 추진 등 중요 변수 작용할 듯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건부' 탈당 가능성을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 탈당을 실천에 옮긴다면 내달 하순 개헌발의를 전후한 시점이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탈당 여부 및 결행시점은 개헌발의 스케줄 및 신당추진과 관련한 우리당 내 상황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지만, 개헌발의 시점이 탈당의 명분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추론에 서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개헌발의 시점에 탈당을 하나의 카드로 삼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개헌발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탈당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헌의 '정략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탈당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개헌추진에 차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당을 돕기 위한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조정을 이뤄내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탈당이란 방법을 통해 알리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말에 탈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

나 결과적으로 탈당은 열린우리당내 상황, 개헌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 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우리당은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여당이 아닌 썬이 되기 때문에 개헌의 추진력을 살려나가기 힘들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개헌 주체가 여당이 돼야 하고, 한나라당이 토론도 안하는 상황에서 탈당을 한다면 개헌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차원에서 탈당을 해서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결국 노 대통령은 개헌의 진정성과 추진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탈당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당추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당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돼 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큰 상황이어서 개헌 발의시점의 노 대통령 탈당 가능성은 현시점에서는 유동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수파 '머리 아파' 열린우리당 김두한 전 최고위원이 2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혁신본부 당원 대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52% “박근혜-이명박 각자 출마”

■ 연합뉴스 여론조사 “4년 연임 선호” 50.8%



유권자 2명 중 1명은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2'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당 대선 후보 경선 전에 갈라서 각자 출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여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선두권을 차지했지만 손 전 지사의 여권 후보 영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만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3.1%)에서 나타났다.

△**취. 후 독자 출마**=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두 주자가 '경선 전에 갈라서 각자 출마할 것'이란 응답은 51.6%로 '경선을 치르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란 응답(38.5%)보다 훨씬 많았다. 두 주자가 분열할 것이란 전망은 젊은 층, 고학력자,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았고 호남·충청권 및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 지지자들에서 더 뚜렷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는 손 전 지사(14.9%)와 정 전 의장(14.0%)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차지했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6.6%), 김근태 의장(5.2%),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3.1%), 정은찬 전 서울대 총장(2.1%)의 순이었다.

손 전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0대(22.9%)와 인천·경기(20.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 전 의장 지지는 호남(23.5%)과 우리당 지지층(33.0%)에서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손 전 지사의 여권 후보 영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3.0%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2.8%)에 비해 훨씬 많았다.

△**대선 후보 선호도**=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전 시장이 48.1%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표(17.7%)가 그 뒤를 이었고, 손 전 지사(3.9%)와 정 전 의장(3.8%)이 오차범위 내에서 3,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정 전 의장(10.5%)이 이 전 시장(35.0%)에 이어 2위로 올라서고 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7.9%로 1위였고 그 다음은 우리당(13.3%), 민주노동당(8.0%), 민주당(5.4%), 국민중심당(0.8%)의 순이었다. 차기 집권 가능성과 관련해, 범여권 단일 후보가 나올 경우 범여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7.8%에 그쳤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81.1%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개헌 지지도**=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0.8%로 현행 5년 단임제(42.0%) 지지보다 높았다. 그러나 연내 개헌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1.0%로 찬성(42.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당일(9일)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임기중 개헌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이 70%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여론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金-鄭 '전략동거' 중앙위가 분기점?

김근태, 참정연 설득... 당사수족 기울여 정동영, 전대 개최에 최선... 탈당쪽 무게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연세탈당으로 분당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 양대계파 수장인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전략적 동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을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은 전당대회와 성공적 개최와 질서 있는 신당추진을 통해 리더십과 세력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구상인 반면, 정 전 의장은 당 사수와 탈당카드를 양손에 쥐고 자신의 입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진로의 1차 분수령이 될 29일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두 사람 간 '전략적 동거'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탈당 쪽 기운** 정동영=정 전 의장은 당 사수와 탈당의 경계선상에 서있다. 2·14 전당대회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게 기본적 스탠스이지만 탈당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이는 당내 상황이 가변적으로 흐르는데 따른 '전략적 위치 선정'이다. 당내 여론이 전대 개최를 통한 '질서 있는 신당' 쪽으로 흐를지, 아니면 탈당을 통한 신당 쪽으로 기울지 예측하기 힘든 국면인 만큼 양쪽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 기류를 들여다보면 탈당 쪽으로의 기울기가 느껴진다. 측근들은 29일 중앙위원회가 무산되거나, 중앙위 이후 당 사수파의 조직적 반발이 계속될 경우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흘리고 있다. 어차피 탈당을 통한 신당창당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간다면 '막차'를 타기보다는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서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사수 발 묶임** 김근태=김 의장은 당 사수 쪽으로의 외길수순에 접어들었다. 현직 당 의장의 위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질서 있는 신당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일한 활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당파와 사수파 양쪽으로부터 비판론에 직면한 김 의장으로서의 일단 전대를 무난히 치러내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후 정치일선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세력 기반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신당 추진을 극력 저지하려는 참정연 강경그룹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김 의장으로서도 탈당의 여지는 일정정도 열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로 관측된다.

△**당사수 발 묶임** 김근태=김 의장은 당 사수 쪽으로의 외길수순에 접어들었다. 현직 당 의장의 위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질서 있는 신당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일한 활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당파와 사수파 양쪽으로부터 비판론에 직면한 김 의장으로서의 일단 전대를 무난히 치러내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후 정치일선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세력 기반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신당 추진을 극력 저지하려는 참정연 강경그룹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김 의장으로서도 탈당의 여지는 일정정도 열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한 빅3 캠프 "입조심 하자"

이명박 '충청 비하발언' 논란 손학규 '시체 발언' 비판 받아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 캠프에서 최근 "입조심 하자"는 얘기가 부쩍 늘고 있다.

실수로 내뱉은 말 한 마디가 '공든 탑'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아무리 말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지지를 1위로 고공행진을 계속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잇단 '실언성' 발언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하례식에서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청도 표가 가는 곳'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 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가 '충청 비하발언'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충청권 유권자들이 훨씬 싫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회주의적' 투표 행태를 보였다는 얘기로 들릴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고 건 전 총리의 중도하차와 여론의 '러브콜'로 지지율이 오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도 '실화'로 인한 학습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발언의 강약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 자 직 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육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2월 1일 첫전도 개강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본원 ☎ 227-8003
첨단점 ☎ 971-0002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모집대상: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과대학(방통대 포함)·이과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취업보충대상자
-비전향신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일일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수강료 전액 무료
-교재 무료 제공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6개월 총 300,000원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매월 200,000원)→6개월 총 1,200,000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분야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80, 224-4580

버스노선: -전남여고
-봉산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문화전당역(구 도청)
-전남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흥남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예술의거리입구
-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제중앙병원 내 ★http://www.hdedu.co.kr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2월 1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여명 모집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정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맞은편 ☎ 222-5105

중개사 전문강의 17년!!
공인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공법:권철 -공시법:윤철환
-민법:윤철환 -세 법:유영
-부동산학:김범 -법령·실무:김봉익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맞은편 ☎ 222-5105

www.kjkimyo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9088